

Ⅰ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Ⅰ

정신질환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장 중간관리자의 인식 및 태도

양선임, 임현우, 조선진, 자유나, 정혜선, 김보경, 이강숙, 이원철 /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17권 1호

본 연구는 중소기업 사업장 중간관리자의 근로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중간관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 16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정신질환관련 특성을 조사하였고,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중간관리자의 우울수준과 성격을 조사하였다. 우울수준은 CES-D(한국어판), 성격검사는 MBTI를 이용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CAMI(한국어판)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AMI로 측정된 중소기업 사업장 중간관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권위주의 35.0 ± 4.4 점, 자비심 23.0 ± 4.8 점, 사회생활제한 32.3 ± 4.9 점, 지역정신보건개념 27.2 ± 5.1 점이었다.

2. CAMI의 하위영역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 영역”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마스크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과 우울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권위적이었다.

3. CAMI의 하위영역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비심 영역”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우울할수록 그리고, 마스크 접한 경험이 없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비심이 적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비심이 높게 나왔다.

4. CAMI의 하위영역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생활제한 영역”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정신질환자접촉경험이 없는 사람, 가구 총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여자보다는 남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생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5. CAMI의 하위영역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정신보건개념 영역”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정신질환자 접촉 경험이 없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 개념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중간관리자들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경험이 중간관리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중재가 교육이나 자원봉사, 영화회

등 직·간접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우울수준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의 우울수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